

# 家族像 연구의 接近法 및 그 適用

Approaches and the Application on the Study of Family Image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박사과정 趙銀淑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玉先花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Doctoral course* : Eun Suk Cho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Sun Wha Ok

## 〈목 차〉

- |                           |                             |
|---------------------------|-----------------------------|
| I. 서론                     | IV. 기혼남녀의 家族像에 대한<br>실증적 연구 |
| II. 家族像 용어정의              | V. 결론                       |
| III. 家族像연구의 接近法에<br>대한 논의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family image concept means the natural image people attach to the family, for example, the meanings of the family, the feeling about family. The family image reflects the 'intentionalität' of people's consciousness, so the study on the family image can be the first step of phenomenological reduction. And theories of discourse suggest that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society influences the construction of the family image.

To identify the applicability of the family image concept and research method, 16 married people in Seoul were interviewed intensively about their family image. The result reveals that the family image of the people was different more or less according to their position, but in general it was very positive and idealized.

## I. 서론

현상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은 사람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그 의미가 형성되고 변화해가는 하나의 現象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은 불변의 실체로 주어 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됨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그 의미가 변화해가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가족이라는 대상에 대해 그러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람들이 구성해가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별로 없었다.

본 연구는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의식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받아들여져 있는 가족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점에 초점을 두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형성되어,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해 연구자에게 전달되어진 가족의 모습을 家族像이라고 개념화하고, 그것을 탐구하기 위한 접근법에 대해 논하고, 소규모의 질적연구를 통해 그 접근법이 가족상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고자 한다.

가족상 연구의 접근법으로는 現象學과 談論理論의 논의를 고찰하였다. 가족이라는 대상은 결국 '생활 세계' 속에서 '자연적 태도'로 사물을 의식하는 보통사람들에 의해서 어떠한 인식의 틀을 통해 보여지게 되는 것이지, 가족이라는 대상을 아무 선입견 없이 지각할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론은 현상학의 논의에서 도움을 얻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족상에 내포된 확실성, 가족이상화 경향과 같은 것은 대상에 대한 주체적이고 자유로운 해석을 방해하는 해석과 권력의 문제를 다루는 담론이론을 통해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가족상에 대한 연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써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족을 현실에 보다 가깝게 정의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족형태가 다양화되고, 기존의 正常家族 개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가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위해 필요한 연구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적 태도' 속에서 당연시되고있는 가족의 이미지에 대해

기술투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이런 매일의 경험을 넘어서서 그것의 構成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McLain & Weigert, 1979:172). 그리고 가족상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담론이론의 논의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가족상에 내재한 해석과 권력의 문제에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의의를 갖는 가족상 연구에 대한 초보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우선 家族像에 대한 용어정의를 한 후, 가족상연구의 접근법에 대한 논의를 현상학적 인식론과 담론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접근법에 대한 적용으로,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실시한 기혼남녀의 家族像에 대한 심층 연구의 결과제시와 해석을 하려한다. 접근법에 대한 논의는 지금까지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가족상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일깨우며 앞으로의 연구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가족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가족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얻기 이전에 우선 가족상 개념의 실제연구에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다.

## II. 家族像 용어정의

家族像이라는 개념을 정의하려면 우선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자주 검토된 바 있는 가족의식이나 가족관, 가족가치관 등의 용어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식이나 가족관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진 연구들(고정자, 1979; 변화순·김현주, 1992; 차재순·정확실, 1978)은 대체로 규범적 측면에서 어떤 형태의 가족형태 혹은 가족가치관, 가족역할분담 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었으므로, 사실상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육선화, 1989)와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반면 가족상 연구는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이미 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家族像(family image)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적합한지를 알기 위해, 이미지라는 용어가 이미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미지를 알아보고

위에 실시한 연구들은 어떤 하위개념으로 그것을 조작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미지를 다룬 연구들은 주로 인쇄물이나 방송매체에서 나타난 여성의 이미지(송유재, 1984)나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LaRossa et al., 1991)에 대한 탐구가 주를 이루었고, 가족 이미지연구는 많지 않다. 이들 연구에서 다루어진 '이미지'란 주로 형용사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의 여성등장인물이 갖는 이미지는 어떤 형용사와 가깝게 비추어 지는지 평가하는 것과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 반면 사람들의 가족이미지를 연구한 Gubrium과 Holstein(1987)은 가족 이미지는 가족이라는 現象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예를 들면 '마지막 인식처로서의 가족에 대한 정서'와 같은 것이 가족이미지라고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미지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에서도 이미지라는 용어를 구체적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다.

선행연구들에서 이미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은 없었지만 이미지란 어떤 대상에 대한 인상같은 것을 말하고, 또 그 대상을 어떻게 의미규정하는가(예를 들면 가족이 인식처라는 의미규정과 같은 것)와도 관련이 있는 개념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족'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을 家族像(가족이미지)을 본다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가족상의 하위개념으로는,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와 가족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지 하는 것을 설정했다. 그러나 이런 개념규정은 본 연구에서 잠정적으로 설정한 것으로서 앞으로 상당한 구체화가 필요한 것이라 본다.

### Ⅲ. 家族像 연구의 接近法에 대한 논의

어떤 사회현상의 연구를 위한 접근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실증적 접근법, 해석적 접근법, 해방적 접근법이라는 구분을 해보려 한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가능하며 자연과학의 방법으로 사회과학연구에서도 객관성과 가치중립성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는 논리실증주의적 경

향을 실증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무의식적 선택의 과정이며, 있는 그대로를 인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상학적 인식론이 대두되면서 논리실증주의의 대안으로 제시된 방법론을 해석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적 접근법이란 비판사회과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으로 사회의 불평등성과 체계적으로 왜곡된 사회적 상황의 극복을 위한 실천적인 가치를 갖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家族像 연구의 연구의의나 연구방향에 대해 위의 세가지 접근방법 중 해석적 접근법과 해방적 접근법의 논의를 통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現象學的 認識論과 談論理論을 중심으로 가족상연구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 1. 가족에 대한 指向的 認識

현상학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적인 태도로 의심없이 받아들이는 주어진 세계, 즉 당연하게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를 '생활세계'라고 한다. 생활세계에 대해 아무 의심없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태도를 '자연적태도'라고 하고, 이에 반대되는 인식태도를 현상학적으로 한다(차인석, 1987:42).

현상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指向性(intentionality)이라는 개념이 있다. 지향성은 판단이나 의지, 감정이 섞인 의도적 행위가 아니고, 의식의 본질적인 동태적 과정으로서, 모든 의식과정은 지향적 인식일뿐,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현상학자들의 인식론으로 이 부분에서 실증주의자들과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푸른 나무라는 것도 우리 눈에 실제로 보이는 것은, 푸른 감각을 자아내는 빛의 일정한 모양인데, 이에 대해 우리가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하여 부여받은 어떤 틀을 가지고 그러한 필연들을 종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종합화의 과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과 인식주체 간에 상호작용적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훗설은 '대상이 의식안에서 스스로를 構成한다'(차인석, 1990:50)는 식의 표현을 자주 썼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주위세계와 意識 간의 指向 관계를 망각하고, 자연적 태도에서 보고 만지는 것이 우리로 부터 독립해서 당연하게 實在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때 우리는 수시로 현상학적 태도의 반성을 함으로써 이것들이 '나의 의식이 지향하는 그 무엇들'이라고 바꾸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반성적 방법에서 주어진 것이 참사료이며 훗설이 추구하는 事象 자체가 된다.

현상학적 반성이 없는 자연주의적 태도를 훗설은 '인격적 자아의 자기망각'(손봉호, 1990)이라고 표현했을만큼, 사물의 본질을 깨닫는데 있어서 이러한 반성적 태도는 중요하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활동도 생활세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생활세계 내에 당연시된 가치와 편린들이 과학적 활동에 스며 있으며 이런 것에 대해 의문시하지 않고 단지 '과학적인 실험과 관찰방법'으로 연구의 객관성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단서가 희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상진, 1983). 과학에서 사용하는 이론적 틀, 용어 등도 하나의 패러다임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생활세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연구의 전제가 되는 생활세계에 대해, 자연적 태도를 넘어선 현상학적인 환원의 태도가 중요하고, 현실세계의 행위자들이 구성해내는 현실이 아닌 현상 그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즉, 연구자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를 읽어보는 초월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니온 일상적 전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내는 것이다(조혜정, 1988:32). 이러한 지적은 가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훗설의 현상학을 사회학적으로 도입한 슈츠(Schutz)의 사회현실에 대한 인식은, 家族像이 가진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식과정을 통해서 사회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들이지만, 일단 사회세계가 구성되면 그 다음에는 구성된 의식이 각 행위자들의 창조적 행위를 더 깊게 구속하는 사회적인 構造物이 된다고 보았다(Ritzer,

G., 1992:343). 또, 어떤 지식이든 개인적인 요소까지도 전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으로 개관화되고 결정된다(Ritzer, G., 1992: 352)고 하였다. 물론 개인적인 독창성이 개입될 여지가 있음을 슈츠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단적으로는 사물에 대한 인식의 틀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있는 모습 대로의 가족이라는 대상을 인식할 수는 없고(그런 것이 인간에게서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構成되어진 가족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은 이미 자신의 지향성이 개입된 상태에서 가족현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가족상은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진 가족에 대한 인식의 틀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家族像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세계를 주체화하여 현상학적 입장에서 성찰의 대상으로 삼는 노력의 시작이다. 가족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지향적 가족인식의 결과라는 전제를 하고 가족상에 대해 검토를 해야한다.

현상학적인 가족연구에서 가족은 하나의 현상으로 취급되어진다. 반드시 행위자가 가족을 경험할 때 의식에 나타나는 것을 통해 가족이라는 현상이 접근되어야 한다(McLain & Weigert, 1979:171). 가족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을 위해서는 매일의 삶에서 행위자들의 자연적 태도 속에 있는 가족이라는 현상에 대한 충분한 체계적 기술이 필요하며, 그런 기술이 이루어질 때 이런 매일의 경험을 넘어서서 그것의 構成과정을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McLain & Weigert, 1979:172).

그러나 생활세계에서 경험되는 가족이라는 현상에 대해 기록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그 흔치 않은 연구들 중에서도, Gubrium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談話(discourse)<sup>2)</sup>를 통해 형성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기술해왔다. Gubrium의 가족이미지 연구<sup>3)</sup>를 개관함으

1) 이러한 논의를 길혼초기 적용에 적용한 Berger와 Kellner(1980)는, 사회가 남자에게 결혼에 대해 당연시되는 이미지를 공급한다고 하였고, 따라서 길혼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미리 정의된 기대들을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로써 가족상에 대한 현상학적 접근법의 논의를 마무리 하려 한다.

Gubrium은 가족 혹은 가족적인(familial)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構成되는 現象이라고 보았고 가족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실제의 투영(reality project)이라고 보았다. 그는 다년간의 연구 즉 집, 탁아소, 요양원, 가족지원집단, 정신건강시설 등의 장소를 참여관찰하면서, 그런 場에서 가족이 어떻게 담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사람들이 가족개념을 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개별 가구 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으로 구성된, 비밀이며 숨겨진 지식인 각자의 가족이미지가 “집합적 신화(collective myth)”로서 각 하위집단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합적 신화인 정상가족(the family)이 사회통제의 인자가 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Gubrium의 연구는 가족을 현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같은 관점을 취하고 있으며, 직접 담화의 현장을 관찰하여 사람들이 가진 가족이미지를 포착하였다는 점에서 가족에 대해 느낌과 생각을 직접 질문한 본 연구보다 더 정교한 연구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 2. 가족상에 미친 正典的 해석의 영향력

사회적으로 공인된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하는 談論理論에서는 모든 말과 글은 사회적이라고 본다. 談論들은 그것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말을 하는 상대방의 위치에 따라 모습을 달리한다(다이안 백도넬, 1992:9).

담론연구의 입장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그 논의들

에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주목하여 보려한다. 즉, 어떤 현상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사회에서 正典(authenticity)으로 인정되는 해석을 ‘누가’ 하는냐에 따라 사회가 부여하는 그 현상의 의미가 다르게 정해진다고 본다. 즉 수직적인 관계에서 어떤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지체계에 차이가 있을 때 어떤 해석이 우위를 점하느냐 하는 것에는 권력이 작용하고, 해석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집단에게는 이러한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 상징들이 일상의 삶에서 상징으로 작용하여 지속적인 불평등을 낳는 과정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푸코의 논의에 따르면, 인식주체가 대상을 表象할 때 그 표상의 과정은, 인식주체들이 그에 무의식적으로 따르게 되는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일어난다. 이 과정은 그 과정을 가능케하는 어떤 조건들에 따라서 일어나는데 그 조건에는 언어적 조건들이 있고, 사회적 조건들이 있다. 전통적 인식론은 전자를, 맑시즘이나 뒤르켐, 지식사회학에서 강조된 것은 후자였다. 푸코는 이러한 인식의 조건들이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환된다고 했다(이정우, 1993:96-97). 인간이 세계를 인식할 때 또는 인간경험이 언어화될 때 세계와 주체, 경험과 이론 사이에는 인식이나 언어화를 형성시킬수 밖에 없는 규칙성이 존재하며 이 규칙성의 장이 인식론적 場이자 담론의 질서인데, 어떤 인식도 우리가 세계를 ‘어떤’ 세계로 인식하는 한 이미 이런 담론의 질서를 통과해서 인식된 세계라고 보았다(이정우, 1993:139-140).

家族像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가족이란 남성 중심의 진족집단의 일부이며, 그 의미를 영속적인 세계승에 두었던 조선시대 유교적 가족이념 하에서 사람들이 가졌던 가족상은 그 사회의 지배집단이었

- 2) ‘discourse’는 담론, 담화, 언설 등으로 번역된다. 본래는 논증적 언어, 학적체계를 갖춘 언어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던 용어지만, 그 사용범위가 점차 확장되어 일상적 담화부터 문학, 종교, 정치적 담론들, 지식체계를 갖춘 언설들, 과학적 명제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이정우, 1993:176). 따라서 이에 대한 번역도 상황에 맞게 선택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일상적인 언어를 가리키는 의미가 강하므로 담화라 번역하였고, 담론이론에서는 주로 담론으로 번역했다.
- 3) Gubrium은 1975년 부터 1987년 까지 일상적 담화에서 나타나는 가족이미지에 대한 연구를 9편 이상 발표했고, 1990년에는 이전 연구들을 종합한 단행본 [What is Family]를 저술했다.
- 4) 이 조건 중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조건에만 치중하여 논하였다.

던 사대부계급의 정전적 해석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외의 다른 의미로 가족을 이해하려 하거나 가족에 대한 그러한 정전적인 의미를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도록 진반적인 사회과정이 조직화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의 주도성분제는 오늘날의 가족상에도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의 Gubrium의 연구(Gubrium & Holstein, 1987)에서도 사회적으로 구성된 집합적 신화로서의 가족 이미지가 사회통제의 인자가 되는 과정을 조사하고 있는데, 사실 가족(the family)이라는 것의 단일형태를 설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병백히 있는 듯이 행한다. 예를 들어 내담자를 진단할 때 내담자의 가족이 얼마나 그 집합적 신화로서 나타난 가족의 모습과 일치하는지에 기초해서 진단하는 것도 특정 가족형태의 정상성에 정전적 권위를 부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예로 심리적 건강이라는 개념의 해석 주도권을 남성이 쥐게 됨으로써 상담상황에서 남성중심으로 심리적 건강 개념이 해석되어 왔다는 점이 여권론적 심리치료자들에게 의해 지적되고 있다(최연실, 1994).

가족에 대해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식의 틀을 이데올로기라는 용어로 표현한 Morgan(1991)은 가족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가족이데올로기는 일반인들의 私的 언급 속에서 대중상을 얻고, 전문가 집단에 의해 정교한 형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의 언급에 협조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영향을 받는데 이 때 전문가들의 언급에는 대중매체의 것도 포함된다. 가족이데올로기 연구에서는 이러한 것들 사이의 상호작용 분석이 중요하다. 그리고 담론이론에서는 그런 전문가와 대중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누구의 말이 어떤 조건 하에서 정전성을 획득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논한 가족상개념도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三從之道나 정절 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등은 유교적 가족규범에 힘입어 권위를 얻은 가족이데올로기이지만 그것의 등장에는 대중들

의 동조가 있었고, 그런 동조가 가능케 하기위해서 그외의 사회적 조건과 각종 상징체계들이 구비되었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낭만적 사랑의 이미지(Settles, 1987:158)가 미디어나 동료집단을 통해서, 특정 선택만이 확실히 살한 것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사고를 구조화시켜 우리의 사부심을 규정하고 좋은 가족에 대한 이미지와 이상을 결정하며 우습게도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게 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낭만적 사랑의 이상도 산업화와 더불어 대두된 이데올로기이다(Salsby, 1985). 또 현대사회의 소시민화와 탈정치화 현상은 '단란한 핵가족에 대한 환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조혜정, 1988:202)는 지식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란한 핵가족에 대한 이미지 역시 미디어 등의 영향을 통해 정전성을 획득한 가족이데올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이데올로기들은 그것에 위배되는 다양한 형태의 삶에 대한 주체적 선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소외시키며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해체되어야 하는 것인데, 家族像에 대한 담론이론적 분석을 통해 그러한 노력이 시도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푸코는 해석을 누가 내리는가 하는 다름이 곧 권력다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의 '지배적인 해석'에 대해 끊임없는 논의와 반론과 저항적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 사회적 조건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특히 논의의 폭집을 방지하는 것, 각 집단이 지닌 상이하고 때로는 대립적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논의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을 갖추는 것 등이 지배적 해석체제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중요한 작업의 일환이라고 하였다(조혜정, 1988:94-95).

우리가 가족을 이해할 때 당연히 하는 인식의 틀에는 해석의 주도권을 가진 집단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족에 대한 의미 혹은 심상들이 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가족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 사회의 지배적인 가족상이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되며 혹은 불이익이 되는지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통용되는 가족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에 반론과 논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

로서의 의미를 갖게된다. 이것이 바로 해방적 접근법이 가족상 연구에 부여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 IV. 기혼남녀의 家族像에 대한 실증적 연구

앞에서는 家族像연구의 접근방법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가족상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및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족상 개념이 실제 연구에서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의 심층면접조사를 통한 기혼남녀의 가족상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가족상이 어떤 형태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리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그 가족상을 담론 이론을 통해 해석해 봄으로써, 가족상 연구에 현상학적 접근과 담론적 접근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었다.

기혼남녀의 가족상에 대한 연구를 연구방법과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가족상을 알아보기 위해 성, 연령, 계층을 안배하여 표집한 기혼남녀 16명을 대상<sup>5)</sup>으로 심층면접법을 사용하여 실시된 것이다. 면접은 가족상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가 미리 준비해간 질문을 통해 조사의 기본 출가를 이끌면서, 면접의 흐름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은 1994년 5월과 6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면접시간은 1명당 30분에서 1시간 가량 길었으며, 모든 내용은 녹음으로 채록되었고, 녹음된 면접내용은 문자화되었다. 면접내용의 분석에는 연구자 외에 가족학전공 석사<sup>2</sup>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상을 '사람들이 가족에 대해 갖는 이미지'라고 보고, 그 하위개념으로는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되며, 가족에 대한 느낌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한 하위개념의 설정에 있어서는 이미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였음을 앞의 용어정의 부분에서 밝혔다.

##### 2.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가족상을 알아보기 위해 면접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질문 된 것은 당신이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누구냐는 것이었다. 이 질문을 한 이유는 '가족'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상황과 시기에 따라 그리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상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염두에 두고 대답하는 가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가족'이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본 연구의 면접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핵가족을 의미하는데 사용하기도 했고, 친족집단을 지칭할 때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은 배우자와 자녀라고 핵가족적 범위로 가족을 응답한 사람도, 바로 그 다음 질문에서 부모형제가 가족에 포함되느냐고 물으면 '그렇다, 그건 다 포함했을 때의 가족이고...' 라는 식으로 가족개념을 바꿔서 응답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면접결과 응답자들은 성별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를 자신의 가족으로 생각하는지 여부에 차이를 보이는 등,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범위는 다양성을 보였지만, 그런 다양성과 관계없이 응답자들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서 포괄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기 자녀의 선을 넘지 못했고, 이 중 자기 자녀와 배우자, 부모, 형제의 순으로 가족의 범위로 인식되는 경향을 순서지을 수 있었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상이라고 했을 때

5) 남녀 각각 8명씩이며, 연령은 50대와 결혼한지 5년 이내의 20-30대를 반반씩 표집했으며 계층에서도 중상층과 저소득층이 반반씩 되도록 표집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가족은 위와 같은 범위를 염두에 두고 응답되어진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다음에는 가족상의 하위개념으로 설정한 '가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와 '가족에 대한 느낌'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가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산업화 이후의 사회에 흔하게 존재하는 家族像 중의 하나가 가족이 '삭막한 세상의 안식처'라는 이미지가 될 것이다.<sup>6)</sup> 이런 이미지와 같이 사람들이 '가족은 무엇이다' 라고 의미규정하는 것이 가족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당신은 가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였다.

가장 자주 나타난 응답은 가족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남성들 보다는 여성들이 이러한 응답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가족은 참 따뜻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너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 이해되고 용서가 있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50대 여성응답자).

가족은 '혈연공동체'라고 보는 응답도 자주 나타났다. 이런 응답은 남성들에게서 더 빈번하였다.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이런 말에는 끈끈한 관계, 어쩔 수 없이 잘 지내야만 하는 관계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가족이라는 것은 한 피가 다 어린 핏줄이고... 그러니까 가족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좋으나 그르나... 그것은 잘라낼 수도 없는 것이고 상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족이라 그러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게 가족이고... (50대 남성 응답자)

가족을 사랑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경우와 혈연공동체로 인식하는 응답자의 이러한 성별대비는 선행연구(켈럽, 1983)에서도 명백히 나타난 바 있다. 특히 6개국을 비교한 그 연구(켈럽, 1983)에서는 혈연으로서의 가족의 속성에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은 한국이 현저히 높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속성에 대한 동의는 한국이 서구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한국남성들의 혈연가족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가족에는 사랑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생겨나죠, 그건 가족이기 때문이죠... 피는 불보다 진하기 때문에 혈통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50대 남성 응답자)

와 같은 말이 그러한 생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응답자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혈연을 초월한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 남성들의 혈연가족에 대한 생각과 대조를 보였다. 예를 들어 '혈연이 아닌 사람과 한 공동체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한 여성응답자는

내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가족이 아닌 딴 삶도 내 가족같이 생각이 들기야... 항상 그런 걸 생각해온게 뭐냐 하면, 나중에 같은 동네에 가서 같이 해놓고 살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항상 마음에는 가지고 있거든요(50대 여성응답자).

라고 대답했는데, 이런 식으로 혈연체제적이 아닌 공동체적 지향을 다수의 여성응답자들이 보여주고 있었다.

남성응답자들에게서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상이 나타난다는 것과 여성응답자들에게서 애정공동체로

6) 사람들의 가족범위 인식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더 자세한 자료들이 있지만 그것을 가족상의 하위개념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으려 한다.

7)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가족이 안식처라고 생각한다는 질문에 모두 강한 긍정의 반응을 보였었다.



서의 가족상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에 대해 담론이론을 통한 분석을 해볼 수 있다.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상은 농경사회의 전통에 이어 조선시대의 유교 통치를 통해 더욱 강화된 우리나라의 부계중심 가족주의 가치(옥선화, 1989)와 관련된다고 본다.

남성들은 앞에서 언급한 가족범위에 대한 인식이 여성의 경우보다 더욱 부계중심적이어서, 배우자의 부모, 형제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적었는데, 이런 남성응답자들에게서 '가족은 혈연공동체'라는 家族像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기서의 '혈연'이란 부계중심적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상이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강하게 표출되는 것은, 부계중심적 가족구조에 편입되어, 그전까지 타인이었던 부계친족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하는 경험을 했던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생활세계가 자신의 혈연만이 가족이라는 인식의 틀을 유지해도 불편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혈연이 아닌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삶에 대해 더욱 폐쇄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 것이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이미 夫系親族에 대해 그들을 가족으로 인식해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의 혈연이 아닌 사람에 대해 가족처럼 포용하는 일에 더 개방적일 수 있다고 본다. 즉,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사회적 조건들과 생활세계가 이들 각각에게 다른 가족상을 갖게 했을 것이다. 특히 국제적인 비교(깁럽, 1983)를 해보았을 때 한국남성들의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상은 매우 두드러진 것이며, 한국의 유교적 전통은 다른 나라에 비해 두드러진다는 점을 놓고보면, 이는 家族像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構成되어진다는 견해를 긍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된다.

'가족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가족상은 남녀 모두에게서 많이 나타났지만 특히 여성 응답자들이 더 많이 언급한 것이다. 이러한 가족상은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제도로서의 결혼' 보다는 '우애적 결혼'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가족의 정서적 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형성된 가족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그러한 사회 전반의 변화에 대해서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이 수용하여 '가족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가족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Thompson & Walker, 1989)에 따르면 여성이 결혼의 정서적인 면에 관심을 더 가지며 그로 인해 복지감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가족은 혈연공동체'라는 家族像이 前산업사회의 가족상이라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족상은 산업사회의 대표적인 가족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남성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족상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덜 수용적이고, 오히려 지금까지 혈연공동체로서의 가족상에 의해 큰 이득을 보아 오지 못한 여성들이 새로운 가족상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혈연공동체'와 '애정공동체'로서의 가족상을 나타내는 응답자들의 위와 같은 성별대비는, 시대 상황의 변화나 정전성을 획득한 가족에 대한 해석이 변화되는 과도기에 그러한 변화에의 수용에 있어 남성과 여성이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은 의지와 도움을 교환하는 장이라고 보는 인식도 자주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이 이런 응답을 많이 하였다.

아들 딸은 울타리다 생각들을 하는데... 장성한 아들딸이 있을 경우에 사람들이 저집은 참, 가족이, 남이 보기에 부러울 정도로 가족이, 그런 것도 있고..., 둘이만 세월이 흐르고 살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노인네가 참 측은하다, 말 한마디라도 막하고... (50대 여성응답자)

라는 응답들을 보면 특히 여성들은 가장으로서의 대표권을 갖는 남편이나 아들을 '튼튼한 울타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김은희, 1994) 가족을 의지가 되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반면 가족에 대해 책임감과 관련된 의미를 말한 사람은 주로 남성응답자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책임감은 가장으로서의 권리와 함께 인식되는 것이었다.

일단 가정을 꾸리니까... 그에 따른 책임감이 훨씬 부여되는 기초, 제일 큰게 책임감이죠... 가장이라

는 것, 모든 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길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을... 저라는 가정의 구성원은... 하나하나 빠져나감으로서 50%가, 50% 이상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30대 남성 응답자).

가장으로서의 대표권이나 책임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남성중심의 문화에서 남성에게 부여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징에 대해 남성들 스스로도 수용할 뿐 아니라, 여성들도 똑같이 수용하고 있음을 위와 같은 응답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수용하면 그와 동시에 권위와 권리가 수반될 수 있는 남성의 경우와 달리, 그런 상징들에 의해 직접적인 혜택을 입지 못하는 여성들도 그런 상징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남성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석된다. 만일 여성들의 자립에 부여하는 의미가 보다 긍정적이어서 그런 해석을 수용하는 여성들이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된다면 여성들이 가족을 '울타리'로 이미지화하는 경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어떤 대상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은 그 해석을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에게 혜택이 돌아오도록, 혹은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가 있다고 인식될 때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조건이 부재한 가운데서 의식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무리한 노력이 될 것이다.

## 2) 가족에 대한 느낌

가족이라는 말에 대한 '느낌'은 본 연구가 탐색하고자 하는 家族像이 가족개념과는 다른 것임을 확실히 구분하게 해주는 항목이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사고로 접근하는 것 보다는, 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을 통해서 가족상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항목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처음에는 '느낌'이라는 것의 속성상 매우 다양한

응답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면접결과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은 그리 다양하지 않았다.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은 상당히 규격화된 단어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거의 긍정적인 것 일색이었다.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대상을 어떻게 느낄지를 이미 학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가족에 대한 느낌으로 표현된 가장 일반적인 단어는 '애정'과 '따뜻함'이었다. 모든 응답자들이 이런 표현을 한번 이상 하였다.

... 어떤 공동체에서도 다른 이들을 쓸 수 있는데, 가족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내가 조금 냉랭하게 별로 특별한 관심이 아니었다 하다가도... 더 가깝고 내가 뭔가 이해해야 되고, 나의 진실을 더 여기에 내놓고 싶은, 내마음을 싣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50대 여성응답자).

즉, 이러한 가족에 대한 느낌은 가족이라는 단어만으로 따뜻함을 불러 일으키는 수준에 까지 이른다.

가족에 대한 느낌을 '가족이 없는 사람'에 대한 느낌으로 바뀌어 표현한 한 50대 여성 응답자의 말을 빌리자면 가족이 없다는 것은 "너무 가슴저리고, 안됐고, 딱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방방대대에 떠있는 배같은 느낌"이다. 즉 가족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혼자'라는 등식이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있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사람들의 느낌이 너무나 긍정적인 것 일색으로 나오에 따라 추가로 '가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은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가족으로 인해 부담이나 힘든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수용한다'는 응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보편적인 응답이긴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때문에 생긴 불편이나 어려움을 자신의 가족상에는 연결시키지 않고, 그것은 가족이라는 지상명제를 수행하는데 생기는 약간의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결혼 직후부터 계속 시부모를 부양하며 최근 10년 정도는 병든 시부모를 돌보

는 일까지 맡으며 학교 청소원으로 직장생활까지 했던 한 저소득층 여성은

‘가족이 없으면 좋겠다’ 같은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네요... 좀 안좋을 때도 있지만 그런 생각까지는 안해봤어요.

라고 말한다. 가족으로 인해 아무리 힘이 든 일이 있어도 가족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감히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었다는 의미이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들의 가족에 대한 느낌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것 일색이었기에, 연구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가족상을 ‘가족의 이상화 경향’이라고 개념화 하였다. 응답자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되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상화 경향을 보이는 응답들을 하였다<sup>8)</sup>. 예를 들면,

(친구나 동창 등 가족 외의 사람은)절대로 가족만큼 가까와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50대 남성 응답자)

가족이라는게 소중하죠, 제일, 무엇하고도 대신할 수 없죠, 누가 그런 대신을 해요?(20대 여성 응답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나쁜 점은 없어요(50대 남성 응답자)

결혼을 안하고 혼자 사는게 행복하다 하면 그 사람은 뭔가 잘못된 것이지(50대 남성 응답자)

위의 응답들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족은 최상의 집단이며 이상적인 곳, 가장 소중하며 나쁜 것이 없는 곳이라는 가족에 대한 이상화의 경향이 자주 나타났다.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이 있는 곳, 도움을 받는 곳,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의미규정하고 있고, 가족은 따뜻한 느낌,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라고 응답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가족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하거나, (가족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를 흔히 접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가족의 이상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많은 응답자들은 ‘가족이 없다면’이라는 생각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이러한 가족의 이상화 경향에 대해 몇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은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기혼남녀였다는 점이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자신의 가족을 형성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독신이나 결혼에 실패한 사람, 혹은 부모와의 세대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청소년기 응답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족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기혼자들 외의 집단을 대상으로 家族像을 파악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응답자들이 기혼자였다는 점을 고려하고라도, 이들의 가족상은 지나치게 이상화 되어있다. 여기서 응답자들의 가족 이상화 경향은 사회적 조건과 관련지어 분석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가족은 사회안정의 기본단위이자, 어린이와 노인에 대한 복지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어 왔다. 가족의 기능이 사회로 많이 이전된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위의 두가지 측면은 중요성이 전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대사회적 기능 때문에 사회의 안정을 원하는 집단은 親家族主義의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있기 마련인데, 家族中心主義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징(조혜정, 1988:193)이라고 논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정상적인 가족(the family)의 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 개인이나 다른 공동체의 성원으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사회적 조건을 갖고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다. 여기서 유리하다 함은 반드시 物的인 면 만이 아

8) 앞에서 비현연 공동체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보였다고 한 여성응답자들도 그러한 공동체적 삶에 대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 그칠 뿐 적극적인 실천의지를 내포한 경우는 없었고, 이들 또한 가족은 좋은 것이라는 이상화 경향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나라 사회의 상징체계와 같은 것들이 가족성원에게 더 만족을 주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다. 그로 인해 가족은 좋은 것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가지고 각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수용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가족을 이상화하는 사회 진반의 분위기는 가족 이외의 삶의 방식, 예를 들어 독신이나 비현연 공동체, 무자녀 혹은 비동거 가족, 동성가족 등 정상가족의 범위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에 대한 그 사회의 체계적 분위기와 관련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 이외의 삶의 방식을 선택한 사람들이 법적, 복지적,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의미를 정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족의 이상화 경향이 강한 家族像은 각 개인이 가족 이외의 삶의 형태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 가족내의 개인, 예를 들면 남성이나 여성 혹은 아동의 불리한 현실이나 이들의 변화요구가 수용되기 보다는 가족생활이라는 지상명제 아래에서 조절, 통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할 가능성이 있다.

##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가족상 연구의 접근법에 관한 논의를 현상학적 인식론과 담론이론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기혼남녀의 가족상 연구를 통해 조사연구에서의 家族像 개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그리고 현상학적 인식론과 담론이론적인 접근법으로 연구결과들을 해석하여 보았다.

현상학적 인식론에서는 家族像이 가족이라는 현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인식틀의 반영이며, 가족현상에 대한 보다 나은 관찰을 위해서는 그러한 인식틀 자체 즉, 가족상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담론이론에서는 사회적인 構成物로서의 가족상은 그 형성과정에서 해석의 주도권에 관계되는 권력과 권위의 영향을 받게되며, 또 이미 형성된 가족상은 일상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줌으로써 사회의 불평등적 체계를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을 시사 받았다. 가족상에 대내한 불평등적 상징들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람들의 가족상이 어떠한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가족상에 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가족상이라는 것이 개인적 다양성을 갖기보다는 전체사회 혹은 상반 하위 집단 내에서 상당히 획일화되어 있으며, 가족의 이상화 경향이 강하게 내세워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획일성에 대해서는 현상학적 인식론과 담론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였다. 이 실증적 연구를 통해 家族像 개념과 그 접근법이 실증적 연구에 적용가능함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家의 실현"이 인간 삶의 목표로 간주되었던 유교적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는 家族像에서 가족을 이상화하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화된 가족상이 가족 내에서 불만을 겪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게 하는 힘으로도 작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면접조사의 결과는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족상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 커진다. 가족상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아직 가족상이라는 개념은 개념으로서 세련화되거나 구체화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그로 인해 가족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연구결과도 축적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서 지속적인 탐구가 요망된다. 또 家族像 연구에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기위한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고정자, 여대생의 가족의식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17권2호, 1979:57-81.
- 2) 김은희, 인, 가족, 그리고 성역할의 의미, 「한국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제39집, 문학과 지성사, 1993:81-120.
- 3) 변화순·김현주,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

- 의 비교연구」, '92연구보고서 200-2. 한국여성개발원. 1992.
- 4) 변화순·원영애·최은영,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 '93연구보고서 200-3. 한국여성개발원. 1993.
  - 5) 손봉호, 생활세계,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현상학회 편, 심설당, 1987:131-162.
  - 6) 송유재, 텔레비전 드라마에 반영된 한국여성의 역할 및 이미지 연구, 여성학 논집, 제1권,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1984.
  - 7) 아야베 쓰네키 엮음, 이종원 역, 「문화를 보는 열다섯 이론」, 도서출판 인간사랑, 1987.
  - 8) 옥선화, 현대 한국인의 가족주의 가치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9.
  - 9) 이정우, 푸코사상의 여정, 「담론의 질서」, 새길, 1993.
  - 10)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88.
  - 11) 차인석, 현상학에 있어서의 지향성과 구성, 「현상학이란 무엇인가」, 한국현상학회 편, 심설당, 1987:37-58.
  - 12) 차재순·정확실, 「한국대학생의 가족관 형성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인간발달 연구소, 1978.
  - 13) 최연실, 한국가족에서의 성불평등적 문제들과 여성론적 가족치료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2호, 1994:145-160.
  - 14)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인간가치관」, 1990.
  - 15) 한국갤럽조사연구소, 「가정생활과 자녀교육」, 1983.
  - 16) 한상진, 생활세계의 문제의식과 사회과학, 「현상과 인식」, 제7권 1호(통권24호), 1983:108-129.
  - 17) Berger, P. & Kellner, H. Marriage and the Construction of Reality : An Exercise in the Microsociology of Knowledge, J. Henslin(ed.), 「Marriage and the Family in a Changing Society」, N.Y. :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64:114-138.
  - 18) Gubrium, Jaber & James Holstein, The Private Image : Experiential Location and Method in Family Stud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9, 1987:773-786.
  - 19) LaRossa, R. et al, The Fluctuating image of the 20th century American Father,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3, 1991:987-997.
  - 20) Macdonell, Diane, 「Theories of Discourse」, 임상훈 역, 「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1992.
  - 21) McLain, R. & A. Weigert, Toward a Phenomenological Sociology of Family : A Programmatic Essay, W. Burr et al,(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1979:160-205.
  - 22) Morgan, David, Ideologies of Marriage and Family Life, in D. Clark(ed.), 「Marriage, Domestic Life & Social Change」, London & N.Y. : Routledge, 1991.
  - 23) Ritzer, George, 「Contemporary Sociological Theory」, 최재현 역, 「현대사회학 이론」, 형설출판사, 1992.
  - 24) Salsby, Jacklin, 「낭만적 사랑과 사회」, 민음사, 1985.
  - 25) Settles, Barbara, A Perspective on Tomorrow's Families, M.Sussman & S.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lenum Press, 1987:157-180.
  - 26) Thompson, Linda & Alexis Walker, Gender in Famili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51, 1989:845-871.